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⑮ 관세음보살32응탱 (1)



▶한줄 요약
조선 전기 명작인 '관세음보살32응탱'은 전통적 산수화 기법인 삼원법을 적용해 도상을 구현했다. 이는 평등성지의 경지를 이룬 관세음보살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표현됐다.

삼원법으로 구현한 평등성지 경지

우리는 5가지의 몸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석가모니 붓다는 5온(五蘊)이라 했다. 다섯 가지의 덩어리 또는 무더기란 뜻으로 '색(色)·수(受)·상(相)·행(行)·식(識)'이다. 우선 물질로서의 색신(色身)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본래 용어는 색온(色蘊)이나,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색신이라는 용어를 본 글에서 쓰기로 한다.)

색신이라는 물질로서의 몸체(물질체) 이외에도 수신(受身), 즉 감각 또는 감정의 몸체(감정체)가 있다. 감정의 몸체는 긍정적인 면모보다 대부분 부정적인 면모로 형성되어 있어 어둡고 시커먼 형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신(相身)은 기억의 몸체(기억체)로 대상을 인식 및 인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억체로 인해 나는 '나의 인생과 과거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5가지 몸체의 유기적 작용

행신(行身)이라는 행동의 몸체는 나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을 말한다. 행동 패턴의 에너지 역시 뿌리 깊다, 그래서 이것을 업력(業力)이라고도 부른다. 전생의 행동 에너지는 다음 생으로 몸 바꾸어서도 이어져서, 소위 우리가 해왔던 특정 직업이라든가 특정 전공의 행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소위, 신동 또는 천재라고 하는 아이들은 전생에 끌어올렸던 업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그것을 다시 구현 또는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붓다의 경우도 수십 수백의 생을 반복하며 수행력을 부처의 경지로 끌어올린 분이다. 다음으로, 식신(識身)은 의식의 몸체이다. 업식(業識)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살아온 신념과 관념 역시 고질적이어서 이 의식의 저장고에 축적된 대로 반응하게 되고, 이는 그 사람의 사람됨 또는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 5가지의 몸체는 따로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즉각적으로 상즉상입(相卽相入)하며, 연쇄적으로 서로 반응을 일으키며 스스로를 더욱 강화한다. 물론 물질의 몸체(색신)가 죽어도 나머지인 감정·기억·행위·의식의 몸체는 그대로 살아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이들 5가지 몸체는 서로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며 스스로를 더욱 강화하며 생존한다. 이러한 오온의 생존 방식과 메커니즘을 밝히신 분이 석가모니 붓다이시다. "존재는 곧 오온이다(〈대념처경〉)"라고 붓다는 오온의 작용을 고집멸도苦集滅道와 12연기의 원리로 밝혀놓으셨다.

5온의 몸체를 벗어나는 방법

이러한 5가지 몸체(오온)의 감옥 또는 사슬로부터 단박에 벗어나는 방법이 사마타(집중) 수행이다. 덩어리를 덩어리인 채로 벗어던져 버리는 것이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 우리는 5가지 몸체와 결부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의식'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법의 몸체'라고 하여 '법신(法身)'이라고 한다. 오온의 몸체에서 벗어나 바탕자리 또는 바탕의식(심리학에서는 순수의식 또는 우주의식이라고도 부른다)이라고도 하는 법신의 몸체와 하나가 되면, 비로소 나(5온)과 분리되는 무아체험을 하게 된다. 이제 5온에 갇힌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혜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유식(唯識) 사상에서는 '평등성지(平等性智)'라고 한다. 평등한 성품의 관점의 지혜가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평등성지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이러한 관점을 그림으로, 불화로, 구현한 명작이 있다. 그 명작은 〈관세음보살32응탱(觀世音菩薩三十二應幀)〉이라는 조선 전기(가정 29년명)의 왕실발원 작품이다.

조선 전기 명작 '관세음보살32응탱'
관음보살이 세속 천태만상 굽어 봐
산수화 삼원법 적용해 도상을 구현
평등성지 경지서 보는 세상 표현돼



관세음보살이 세상을 관조하는 '관세음보살32응탱'의 부분. 조선 전기 왕실 발원으로 조성됐다. 현재 일본 교토 지은원에 소장돼 있다.

작품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5온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면 다음과 같다. 5온의 몸체를 우리는 '나'라고 간주한다. 5온 마다 자아(또는 에고 내지 아상)가 동반돼 그것이 '나'라고 동일시한다. 물질의 몸체는 당연히 기본적인 나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감정의 몸체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감정을 느낀다'라고 간주하고, 기억의 몸체도 '나의 기억, 나의 인식'이라고 착각하고, 생각도 '나의 생각'이라고 자아와 동일시한다. 이러한 동일시와 단박에 분리하는 방법이 사마타 수행을 통한 삼매 체험이다. 그리고 5온의 작용을 지금 이 순간, 분해해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방법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5온의 덩어리 또는 무더기는 더 이상 스스로를 공고히 하지 못하고, 부서져버린다. 업장(또는 무의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산산이 분해하여 공(空)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붓다께서는 밝혀놓으셨다. 업장이 윤회의 근원이었는데, 근원을 없애버리니 더 이상 윤회는 없게 되는 원리이다.

이렇게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나'라고 착각하는 5온의 전도몽상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게 된다. 세상 모든 것이 '나'인 것처럼, '나'라는 경계의 감옥이 터져버린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세상 모든 것이 '나'인 동시에, 또 세상 모든 것과 '분리'가 일어난다. 함께하지만 결코 함께하지 않는 묘한 의식이다. 이 의식의 특징은 대상에 따라 결코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不動)이라서 부동지(不動地)라고 부르기도 한다. 붓다의 깨달음의 부동지의 획득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체 반응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만 세상을 모두 보고 있는 이 의식은 투명하고 청정하다. 그래서 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고도 부른다.

곽희의 삼원법과 평등성지

'관세음보살32응탱'의 화면에는 전례없는 독특한 관점의 풍경이 펼쳐진다. 화면 상단 중앙에는 관세음보살이 배치되고, 그 아래에는 중생이 사는 세계가 펼쳐져있다. 법신의 자리(또는 의식)에서 관세음보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려 다보는 조감도식(鳥瞰圖式) 각도의 화면이다. 조감도식 관점이란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관점을 말한다. 조감도식 관점은 평등성지의 관점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기법하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을 유일무이하게 불화에 차용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그린 화사 이자실의 뛰어난 불교적 이해력과 수행력이 탁월하게 돋보인다고 하겠다.

작품의 상단의 한 가운데에 있는 관세음(觀世音)보살은, 그 명칭의 뜻 그대로, 중생이 내는 속세의 고통 소리(世音)을 두루 빠짐없이 '관(觀)'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이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여유 넘치는 자세로 앉아 위풍당당하게 속세를 통찰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관점이 그대로 그림 전체의 관점이 된 수승한 작례라고 하겠다.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산봉우리와 계곡 사이까지 구석구석 살살이 분명하게 보인다.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관세음보살보문품'(〈법화경〉)에 언급 된 칠난삼독(七難三毒)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맞닥뜨린 중생들의 천태만상이다. 그 각각의 상황마다 관세음보살이 다양한 모습으로 응신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세음보살의 관점이 적용된 화면의 구도를 보면, 그 시점이 한 군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시점,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 심심계곡을 넘겨 들여다보는 시점 등. 이러한 복합적인 시점의 종합적인 회화적 구현으로 유명한 화가가 곽희(郭熙, 1023-1085)이다. 중국 북송(北宋)의 화가로 동양화 또는 산수화에 있어 삼원법의 기법을 창시한 사람으로, 천년 전통 동양 산수화의 맥락에 가장 큰 일획을 그은 대가로 손꼽히고 있다. 곽희의 삼원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화에서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익혀야하는 기법으로 칭송된다. 삼원법이란, 평원(平遠=水平視 대상을 수평적 시점에서 바라본 관점)·고원(高遠=仰視 대상을 우러러 올려다본 관점)·심원(深遠=俯瞰視 대상을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안을 들여다보는 관점)의 3가지 시점을 적절히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아무리 작은 화폭에라도 천지를 구현해 내는 기법을 말한다. 장대한 스케일의 풍경과 기암괴석의 크고 작은 앞뒤의 풍경을 하나의 공간에 연출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삼원법이 본 작품 '관세음보살32응탱'에 불교적 깨달음의 관점인 평등성지의 관점으로 기막히게 연출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